

선거운동 마지막 날 순천·화순 표발 현장

막판까지 예측불허... 장대비속 처절 유세

4·2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각 후보들은 장대비 속에서도 막판 불꽃 유세를 펼치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각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장터와 상가, 아파트 단지를 누비며 남은 힘을 모두 쏟아 붓는 총력전으로, 치열한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각 후보 측은 또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선거일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직을 풀 가동해 부동층 확보에 노력을 다했다.

○순천=7명의 후보가 맞붙고 있

작했다"라며 "서민들이 웃으며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야권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순천시민들과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6명의 무소속 후보들도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가를 중심으로 짧은 유세로 가능한 한 여러 곳을 찾아 막바지 유세를 펼쳤다.

조순웅 후보는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개인택시 기사 친목행사와 조려사 회복지관 등을 방문, 참석자와 노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오후에는 국민은행 앞 거리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펼쳤다.



투표소 설치 4·27 화순군수 재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화순읍사무소 직원들이 화순군 화순읍 제1투표소인 화순초등학교 강당에서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화순=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야권연대에 힘 실어달라 지지호소 “순천을 위한 인물 제대로 판단을”

는 만큼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각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졌다.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는 이날 시내 아파트단지와 변화가 등을 두루 돌면서 마지막 선거운동에 혼신을 다했다. 김 후보는 이날 마지막 호소문을 통해 “정권교체의 대장정은 이미 시

조 후보는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작가로서 사실상 진정한 민주당의 후보”라며 “이번 선거는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뽑는 선거”라며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인물’을 집중 부각시키며 일대일 접촉을 통한 표발 다지기에 열을 올렸다.

허상만 후보는 새벽 순천교통에 들러 효도관광을 떠나는 노인들을 만나 무사고 여행을 기원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병원 주변, 순천우체국을 찾아 집배원들을 격려하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허 후보는 “순천을 위해 노력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가 판단해달라”며 농림부 장관 경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구희승 후보도 순천 중심가를 돌며 “소중한 한표 한표가 순천의 미래를 바꾼다”며 투표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인물을 뽑아야만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며 인물론을 강조했다.

김경재 후보는 이날 오전 연설방송을 위한 방송사 방문으로 유세 일정을 시작, 오후에는 시내 변화가를 중심으로 유세를 벌였다.

○화순=군수 재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후보들은 마지막 한 표를 잡기 위해 빗속에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홍익식 후보는 이날 화순읍, 5일 장 등을 돌며 “아깝잖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화합의 고장 화순 건설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후보의 이날 유세에는 화순 출신

며 “이 각오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많이 격려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백남수 후보는 “부부 군수든, 형제군수든 등에 얹은 짝동 민주당이든 이들이 있는 한 화순은 구태정치 1번지, 재선거 1번지의 이름을 씻을 수 없다”라며 “구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화순 정치를 일궈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보신당 최만원 후보는 교육과 교통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 토론회 이후 ‘정책 대안’이 있는 후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화순군수 재선거와 관련, 부자재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대리 투표를 한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인들의 부자재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신고해주고, 대리 투표 또는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 등 2명이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재보궐선거에서는 거소투표에 의한 부자재 투표만 실시되는 점을 이용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 부자재 신고 및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합의 고장 화순건설 동참 호소 “재선거 있게한 장본인으로 송구”

허신행 후보도 시내 경로당과 장애인단체 등 소외계층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 순천 50만 글로벌 도시화, 기업 유치, 전원농촌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허 후보는 “그동안 최선을 다한 만큼 감히 선거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상철 후보는 지지가 확실한 지인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지지를 당부하는 등 표 단속에 주력하면서 오후에는 풍덕동 홀플러스 4거리에서 마지막으로 거리 유세를 펼쳤다.

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홍 후보의 두 딸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읍내 변화가를 돌며 거리유세를 펼친 무소속 임호경 후보는 “화순에 처음으로 군수 재선거를 있게한 장본인으로서 죄송하고 송구하다”라며 “죄송스런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임 후보는 “악순환을 끝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서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행복한 화순의 미래를 꿈꾼다”

재보선 최대 변수는 ‘세대별 투표’

30~40대가 캐스팅보트

이번 4·27 재보선에서 어느 선거보다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면서 ‘세대별 투표율’이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30~40대 유권자의 표심이 모든 선거구에서 승패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이 대부분인 30~40대는 분당을, 강원도, 김해읍에서 야당 성향이 강한 투표를 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한나라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이들은 순천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 화순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반면, 50~60대는 순천에서 민주당, 화순에서는 재현된 투표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선거캠프에서는 자신의 지지층이 많은 세대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선거 운동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희용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과거 선거를 보면 40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나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인 40대 직장인들이 이번에는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날씨와 교통은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분당에서 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사람은 전체의 55%고,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사람은 35%다. 또 김해 시민의 상당수도 창원으로 출퇴근한다. 비가 오거나 교통 정체가 심해지면 투표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천과 화순의 경우도 인근의 여수·광양과 광주로 출퇴근을 하는 유권자가 많아 비와 교통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가 심하게 올 경우 60대 이후 노년층의 투표율도 낮아질 수 있어 비가 어느 후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F1 조직위와 갈등 빚은 KARA 정영조 협회장

총회서 불신임... 네번째 연임 실패

후임 협회장 당분간 공석

F1대회조직위원회(F1조직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카라) 정영조 협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6일 카라에 따르면 최근 협회 이사 6명과 대의원 5명 등이 참석해 정기총회를 열어 정 회장의 협회장직 연임을 논의한 결과 연임 불신임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회장 연임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나 11명 중 6명이 연임에 반대하면서 정 회장이 결국 카라 협회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회장은 1999년부터 임기 4년인 카라 협회장을 3차례 맡아왔으며 최근 임기가 만료되면서 4번째 회장직에 도전했다.

그러나 카라는 정 회장이 12년동안이나 협회장직을 맡아온데다 작년 F1대회 이후 F1조직위와 갈등을 빚으면서 각종 구설수에 올랐고 대회공인비도 받지 못하는 등 협회 운영에 차질을

을 빚은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는 후임 협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당분간 회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이사회가 회장 역할을 대신 하도록 했다.

카라 관계자는 “회장 공석 상태가 언제까지 길지는 않 수 없지만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이 물러난 카라는 그동안 소원해졌던 F1조직위와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카라는 올 초 F3대회 취소로 F1조직위에 통보하고 대회 공인비 문제를 외부에 거론하는 등 사사건건 F1조직위와 갈등을 빚어왔다.

F1조직위도 올해 F1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F1대회를 총괄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유일한 국내 인증 기관인 카라와 불필요한 마찰을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향후 두 기관의 입장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잖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맑고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 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특제제 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제조방법)특수 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도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합원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꼭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몸중 위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본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검색용 지용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빈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원치, / 경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옻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